

# 고전 콘텐츠에 나타난 여아(女兒) 배제 및 쌍둥이 남매 모티프의 변용 연구

- 만화·드라마 <연모>를 중심으로\*

김준희\*\*

## <차례>

1. 들어가며
2. 만화·드라마 <연모>의 주요 서사
3. 고전서사를 통한 여아 배제 및 쌍둥이 남매 모티프의 이해
  - 1) 여아 배제의 근거와 결과: <오누이 힘내기> 설화와 <연모>
  - 2) 쌍둥이 남매 간 외모의 동일성: 쌍둥이 남매가 등장하는 고소설과 <연모>
4. 나오며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만화·드라마 <연모>를 대상으로 고전 콘텐츠가 어떻게 고전서사와 맥락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여아 배제 및 쌍둥이 남매 모티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아 배제의 기제 및 쌍둥이 남매 간 외모의 동일성에 있어서 고전서사 모티프의 핵심적 요소가 <연모>에도 변용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연모>는 남매 쌍둥이의 여아라는 이유로 살해될 뻔한 주인공이 쌍둥이 오빠 대신 남장하고 국왕이 된 이야기다. 남매 중 남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남매가 공존할 수 없고 여아가 배제 되는 것, 외모가 흡사한 남매 쌍둥이가 등장하여 복장전환이 발생하는 것은 구비설화와 고소설 작품 등 고전서사에서 확인된다. 이때 모티프의 핵심 조건, 전제, 전개 등에 있어서는 고전서사와 <연모>가 이어진다. 현대의 <연모>는 <오누이 힘내기>와

\* 본 논문은 한국고전연구학회 2023년 춘계 학술대회(2023.5.13.(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 당시 소중한 조언을 전해 주신 토론자 김신정 선생님, 좌장 이정원 선생님, 여러 청중 선생님 그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같은 남매 갈등 설화에 나타난 여아 배제의 주요 조건과 경과를 의도적이든 아니든 계승하는 한편, 설화에서 여아 배제의 무의식적 기제가 되었던 ‘부인’을 일부 극복하면서 모티프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남매 간 외모가 동일인과 같이 흡사하여 복장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고소설에서 발견되나, 인물의 삶에 대한 영향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연모>는 쌍둥이 남매 간 ‘외모의 동일함’에서 출발하나 남매의 필연적 ‘다름’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국면을 보여준다.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개별 존재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확보함으로써 실현된다. 이 ‘개별성’은 현대적 관점이 투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고전서사 모티프를 현대에 맞게 변용한 성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만화, 드라마 <연모>, 여아 배제, 쌍둥이 남매, 남매관계 설화, 현대적 변용, 고전 콘텐츠

## 1. 들어가며

본고는 고전서사의 특정 모티프를 활용한 현대의 콘텐츠 작품을 대상으로, 모티프를 고찰함으로써 해당 콘텐츠 작품 및 고전서사 양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려는 연구이다. 이번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작품은 이소영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만화 <연모><sup>1)</sup>, 그리고 이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제작된 드라마 <연모><sup>2)</sup>이다.<sup>3)</sup> 해당 작품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1) 이소영, 『연모』 1~11권(출판본 E-book), 대원씨아이, 2011~2014.

2) 한희정 극본, 송현욱·이현석 연출, <연모> 20부작, KBS2, 2021.10.11.~2021.12.14. 방송. 자세한 대본은 한희정, 『연모 1·2 - 한희정 대본집』(E-book), 북로그컴퍼니, 2022를 통해 확인하였다.

3) 한편 만화 <연모>는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소설(홍란 글, 이소영 원작, 『연모』 1~3 (E-book), 노블리타, 2017)로도 재창작된 바 있다. 그러나 드라마는 만화를 원작으로 삼고 있는 점, 만화와 소설의 차이보다 만화와 드라마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명의 작품군을 살펴려면 만화와 드라마를 우선 묶어 논의 대상으로 삼음이

가상 역사물로, 이 작품을 고전서사 연구의 영역에서 살피는 것은 단순히 그 시대적 배경이 조선시대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서사적 모티프가 완전한 현대적 창작의 결과라기보다 고전서사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서사 콘텐츠’라 하면 특정 고전서사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창작한 콘텐츠를 상기할 수 있으나, 고전서사에서부터 존재한 특정 모티프를 현대적으로 재창작한 콘텐츠 역시 고전서사 콘텐츠 연구의 장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화와 드라마 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연모〉는 여성 주인공이 죽은 쌍둥이 오빠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세손-세자-국왕으로서의 삶,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체 노출의 위기, 정적들과의 갈등, 주변 남성들과의 애정 등을 그리는 작품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쌍둥이 오빠를 대신하게 되는 서사의 발단에는 태어나자마자 쌍둥이 남매의 여아( )라는 이유로 살해당할 뻔 하는 사건이 자리한다. 또한 주인공은 쌍둥이 오빠를 대신하여 남장하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전개 of 전제에는 쌍둥이 남매 간 외모가 흡사하여 동일 인물처럼 여겨질 만했다는 설정이 자리하고 있다. 즉 ‘남매 중 여아 배제’ 및 ‘쌍둥이 남매’라는 설정이, 서사 전개의 핵심 요인인 일종의 ‘모티프’<sup>4)</sup>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드라마화 결과 주인공 주변의 인물

---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4) 설화학자 톰슨의 정의를 빌리면, ‘모티프(motif)’란 설화의 전승 요소 중 ‘전승력’을 지닌 최소의 단위이다. (스티스 톰슨, 『설화학원론』, 윤승준·최광식 역, 계명문화사, 1992, 508쪽.) 전승력을 지녔다는 것은 특이하고 인상적이기에 쉽게 기억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아무런 특성이 없는 ‘어머니’는 모티프가 될 수 없지만 ‘계모’는 전설 자식들과의 갈등을 포함하는 모티프로 기능할 수 있으며, ‘막대’는 모티프가 될 수 없지만 ‘부자 방망이’는 모티프가 될 수 있다.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한글개정판), 일조각, 2006, 85쪽.) 이를 참조할 때, 아무 사람이 아닌 ‘남매 중 여아를 배제’하는 것, 그리고 보통의 남매가 아닌 ‘쌍둥이 남매’가 등장하는 것은 만화·드라마 서사의 주요 구성 요소이자 다른 작품과 차별되게 하는 지점이므로 이를 ‘모티프’로 간주할 수 있다.

설정이 상당히 변화하였음에도 이 두 가지 모티프는 유지되었다. 만화가 주목받아 드라마로 창작된 뒤 드라마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국제 무대에서도 수상하는 등 대중적 성공을 거둔 점<sup>5)</sup>을 고려했을 때, 만화와 드라마 공통의 핵심 모티프를 살피는 것은 소위 ‘K-콘텐츠’의 최근 성취를 살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 모티프의 의미는 만화와 드라마가 창작된 ‘현대’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고전서사로 눈을 돌릴 때 그 ‘계보’가 한층 분명해질 수 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성( )의 자식이 있을 때 남매 중 여아가 배제되는 서사가, 다름 아닌 <오누이 힘내기>와 같은 구비설화에서부터 전해져 오기 때문이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딸보다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랐다’는 관습과는 완전히 같게 볼 수 없는 지점이다. 남아와 여아가 모두 있을 때 한쪽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쌍둥이 남매가 등장하고 그 외모의 유사성에 기반한 복장전환<sup>6)</sup>이 발생하는 것은 고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매가 쌍둥이로 태어나 외모가 같은 사람인 것처럼 흡사하고, 그 외모의 유사성이 속임수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서사의 흥미를 더하는 것이다. 본고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창선감의록>의 윤여옥, 윤옥화 남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연모>는 고전서사에서 이미 강렬

5) 드라마 <연모>는 최종화(20회)에서 시청률 12.1%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11월 제 50회 국제 에미상의 텔레노벨라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관련하여 다음 언론 보도가 참조된다.

남지은, 「[연모, 어땠어?] 뻔하지 않아서, 오글거리지 않아서, 그래서 설렸다.」, 『한겨레』, 2021.12.15.,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23406.html](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23406.html)」, 2023.5.1. 접속 김소영, 「박은빈 주연 ‘연모’, 드라마 최초로 국제 에미상 수상」, 『동아일보』, 2022.11.2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22/116626618/2>」, 2023.5.1. 접속.

6) 복장전환(cross-dressing)에 대해서는 “이성( )의 옷으로 갈아입고 성별을 교체하는 행위”라는 최어진의 정의를 빌렸다. (최어진, 「고전장편소설의 복장전환 회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2쪽.)

하게 형상화되었던 여아 배제 및 쌍둥이 남매의 모티프가 서사의 핵심 축으로 ‘귀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창작진이 고전서사의 특정 모티프를 의도적으로 차용했다는 식으로 본고에서 그 ‘의도성’이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고전서사와의 맥락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서사의 특정 모티프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콘텐츠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7)</sup>

〈연모〉는 가상 역사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현대에 제작된 ‘사극’들이 궁극적으로는 현대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와 주제를 이끌어낼지언정, 등장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전통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 아래 살아가는 인물들로 설정되어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현대의 고전 콘텐츠와 전통 시대부터 향유된 설화와 고소설 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여아가 배제되고 쌍둥이 남매 간 복장을 전환하여 활동할 때 유교 국가,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라는 배경에 있어서는 설화와 고소설, 현대 만화와 드라마 간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전서사의 여아 배제 및 쌍둥이 남매 모티프를 되돌아보고 이해하는 작업이 곧 현대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

필자의 과문 탓인지 만화와 드라마를 아울러 〈연모〉에 본격적으로 접근

7) 한국 고전문학 분야에서, 특정 ‘작품’, ‘캐릭터’보다 ‘모티프’ 혹은 ‘화소’의 현대적 변용 양상을 다룬 연구로 다음을 거론할 수 있다. 김금숙, 「설화 〈호랑이 눈썹〉과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비교 연구」, 『국어국문학』 171, 국어국문학회, 2015; 강혜진, 「〈전우치전〉 ‘주선랑’ 화소와 가상에 대한 사유 -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 『고전과 해석』 29,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9; 이명현, 「웹툰 〈도깨비 훈장〉에 나타난 고전서사의 현대적 변용」, 『우리문학연구』 67, 우리문학회, 2020; 이채영, 「웹툰을 중심으로 본 전통적 세계관과 이물교혼 모티프의 계승과 변주 - 웹툰 〈호랑신랑던〉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42, 돈암어문학회, 2022; 김지은, 「웹툰 〈가담항설〉의 모티프 수용양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74, 우리문학회, 2022; 노보윤, 「고전소설 결연징표의 현대적 변용 연구 - K-drama를 중심으로 -」, 『우리문학연구』 76, 우리문학회, 2022 등.

한 학술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대 드라마의 남장 모티프 자체에 대한 석사학위논문<sup>8)</sup>이 이미 10년 전에 제출되었을 정도로 ‘남장’은 현대극에서는 ‘사극’에서든 이제 낯설지 않은 소재다. 다만 〈연모〉는 살해 위협이 따를 정도의 여아 배제, 외모가 흡사한 쌍둥이 남매라는 설정이 주인공의 ‘운명’처럼 부과되었기에 독특한 효과를 자아내는 작품이다.

이때 〈연모〉는 ‘여아 배제’와 ‘쌍둥이 남매’ 모티프를 과편적으로 배치하지 않았다는 데서 주목된다. 고전서사에서 ‘여아 배제’와 ‘쌍둥이 남매’ 모티프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쌍둥이에 대한 기피와 한쪽의 불행은, 〈연모〉 이전에도 ‘사극’ 장르에서 몇 차례 드라마화되었다. ‘쌍둥이 출생은 왕실의 대를 끊을 수 있으니 불길하다’라는 설정은 2009년 방영된 드라마 〈선덕여왕〉<sup>9)</sup>에서도 주인공 덕만(선덕여왕)의 유년기 삶을 좌우하는 예언으로 등장한 바 있다.<sup>10)</sup> 그러나 〈선덕여왕〉의 쌍둥이는 여아 쌍둥이 자매이기에 ‘여아’ 배제를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2016년 방영된 드라마 〈마녀보감〉에서도 쌍둥이 남매로 태어났다가 유폐된 여아가 ‘백발마녀’가 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였다.<sup>11)</sup> 그러나 여아의 삶이 남아의 삶과 맺는 관련, ‘쌍둥이’에게만 존재하는 유사성 등에 초점을 둔 작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기존의 다양한 시도를 존중하면서, 본고는 고전서사의 ‘여아 배제’와 ‘쌍둥이 남매’ 모티프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작품으로 〈연모〉가 적합하다고 보았다. 고전서사에서 두 모티프의 연원을 찾고, 그

8) 김하나, 「한국 TV드라마에 나타난 남장 여성 연구: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 〈바람의 화원〉, 〈성균관 스캔들〉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9) 김영현·박상연 극본, 박홍균·김근홍 연출, 62부작, MBC, 2009.5.25.~2009.12.22. 방송.

10) 드라마에서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왕이 쌍둥이를 낳으면 성골 남성의 대가 끊긴다’라고 예언했다는 설정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여아 쌍둥이 중 훗날의 천명공주가 되는 여아만이 궁에서 성장하고, 덕만은 죽음의 위기를 피해 궁 밖으로 보내진 다음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성장한다는 전개가 이어진다.

11) 양혁문·노선재 극본, 조현탁·심나연 연출, 20부작, JTBC, 2016.5.13.~2016.7.16. 방송.

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두 모티프가 현대 콘텐츠에서 결합하였을 때 이루어진 성취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만화 드라마 〈연모〉의 주요 서사를 살펴, 본격적 비교 논의에 필요한 내용을 점검하겠다. 그리고 3장에서는 ‘여아 배제’ 및 ‘쌍둥이 남매’ 모티프의 측면에서 〈연모〉가 고전서사와 어떻게 이어지고 또 달라졌는지 논의하겠다.

만화와 드라마는 각각이 고유한 하나의 작품이지만, 그러면서도 고전서사와 현대 콘텐츠의 관계에서 만화와 드라마는 넓게 〈연모〉 ‘계열’의 콘텐츠로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만화 〈연모〉와 드라마 〈연모〉의 양상을 모두 살피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즉, 만화 〈연모〉와 드라마 〈연모〉를 따로 논의하여 각 작품이 고전서사 모티프와 맺는 관련을 고찰하기보다, 〈연모〉 계열 작품이 고전서사와 맺는 관련을 한번에 고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한 계열의 콘텐츠인 〈연모〉가 고전서사와 마주보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함이다. 고전서사와의 대면이 〈연모〉의 성취뿐만 아니라 향후 고전서사 ‘모티프’를 활용한 콘텐츠에 대한 연구적 관심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기를 희망한다.

## 2. 만화·드라마 〈연모〉의 주요 서사

만화 〈연모〉는 궁궐 내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어느 날 밤에서 시작된다. 복면 차림의 한 남자가 자신을 막는 자들을 뺀 뒤 왕의 침전 강녕전으로 가서 왕을 만나고, 왕은 “마지막은 여인으로서 맞고 싶다.”고 말한다. 남자는 왕을 끌어안고 “감추어진 왕. 역사에서 철저히 사라져야만 했던 비극의 왕. 나의 왕의 이야기다…….”라는, 독백과 같은 말을 남긴다. 이어서 장면은 ‘1461년 산실창’에서 세자빈이 아들과 딸 쌍둥이를 출산하는 순간

으로 전환된다.<sup>12)</sup> 여성이면서 남성 왕으로 살던 주인공이 왕위에서 물러나는 마지막 날을 그린 뒤, 주인공이 태어나는 순간에서 서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남아 원손이 세 살 때 죽자 쌍둥이 여아가 궁에 들어와 원손 ‘휘’로서 살아간다. 여아 ‘휘’는 왕위에까지 오르나, 결국 정체가 밝혀지면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단행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화 〈연모〉는 총 11권 분량인데, 주인공 ‘휘’(여아)를 기준으로 주요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3)</sup>

1461년 조선 세조 시절, 세자빈이 남매 쌍둥이를 낳고, 왕은 왕실의 쌍생은 불길하므로 여아를 죽이라고 명한다.

3년 후 남아인 원손이 갑자기 죽고, 세자빈은 몰래 다른 곳에서 자라던 여아를 데려와 원손 ‘휘’로 살게 한 뒤 그 해 세상을 떠난다. 이후 원손으로 성장하던 여아 ‘휘’는 궁궐에서 여장하고 살던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를 만나 호감을 느껴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연선’이라는 이름을 준다.

세자가 즉위하면서 휘는 세자가 되고(‘예종’), 왕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곧바로 왕위에 오른다.

정미수가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를 만난 휘를 구하게 되면서 휘는 정미수에게 호감을 품게 되고 정미수 역시 ‘연선’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애뜻한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

휘는 정미수가 예전에 만난 ‘연선’이었음을 알게 되고, 정미수를 형조정랑에 임명한다. 정미수는 휘에 대한 호감이 점점 깊어지며 혼란을 느낀다.

휘는 노사신의 딸을 중전으로 맞이들이고, 합방일에는 두 개의 잠자리를 들이며 합방을 피한다. 중전은 합방을 계속 피하는 휘에게 서운함을 품고, 궁중에 휘와 정미수가 남색 관계라는 소문이 돈다. 휘의 비밀을 아는 종친 자을산군은 휘를 보호하려 한다.

왕의 외조부로 권력을 휘두르며 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한명회가,

12) 이소영, 『연모』 1권(출판본 E-book), 대원씨아이, 2011, 8~22쪽.

13) 논의를 위해 결말까지의 전체 내용을 갈무리하였다. 이어서 드라마의 전체 내용을 정리한 취지 역시 동일하다.



휘의 온양행궁 행차를 주선한다. 자객이 정미수를 습격하나 휘가 화살을 맞는다. 휘는 정미수와 함께 몸을 피했다가 궁으로 돌아오고,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진다. 이 과정에서 정미수는 휘가 여자인 것을 알게 된다.

휘와 정미수가 남색 관계라는 소문이 계속 들자 정미수의 혼사가 추진되지만 정미수는 혼사를 거부한다. 휘는 한명회를 견제하면서 시체가 변색되었던 아버지 예종의 죽음을 정미수와 함께 수사하려고 한다. 그러던 중 정미수의 어머니 경혜공주가 습격을 받고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다.

한명회는 예종의 죽음을 재수사하는 휘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왕이 여자인 것 같다는 의심을 강하게 품게 되고, 죽어야 했던 여아를 자신의 부인이 살려냈음을 깨달으면서 휘의 정체를 알게 된다. 한명회는 결국 휘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결정을 내리고, 자을산군은 한명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왕이 됨으로써 휘를 살리려고 한다.

휘는 여복( ) 차림으로 한명회를 찾아가 왕위에서 물러날 뜻과 정미수를 살리겠다는 뜻을 전하고, 중전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한명회는 대왕대비와 의논하여 자을산군을 즉위시키고, 휘는 유폐된다. 휘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모두 지워지게 하려는 과정에서 비밀을 아는 상궁, 중전 등이 모두 살해당한다. 한명회는 휘를 죽이지 않고 궁을 나가게 해 준다.

이후 휘는 ‘연선’이라는 이름의 여자로서, 정미수와 함께 강호에 묻혀 부부로 살아간다.

다음으로 드라마를 살펴보겠다. 드라마 〈연모〉는 세자빈이 쌍둥이 남매를 출산하는 데서 시작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메인 화면에 “쌍둥이로 태어나 여아라는 이유만으로 버려졌던 아이가 오라비 세손의 죽음으로 남장을 통해 세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궁중 로맨스 드라마”라는 소개를 내걸고 있다.<sup>14)</sup>

만화에서는 쌍둥이 남아가 세 살 때 죽었다고만 언급되기에 남아와 여아

14) KBS, 〈연모〉 공식 홈페이지.

(<https://program.kbs.co.kr/2tv/drama/thekingsaffection/pc/index.html>)

의 이름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으나, 드라마에서는 ‘휘’라는 이름이 쌍둥이 남아의 이름이었다가 이후 여아의 이름이 된다. 드라마의 경우 ‘휘’로 살기 전 여아가 지녔던 이름 ‘담이’로 주인공을 지칭하겠다. 주인공 여아를 중심으로 총 20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자빈이 아들과 딸 쌍둥이를 출산한다. 왕은 남매 쌍둥이를 불길하게 여기고 부원군 한기재는 여아를 죽이라고 하지만 세자빈은 몰래 여아를 피신시킨 뒤 죽은 것처럼 꾸민다.

여아는 ‘담이’라는 이름으로 궁 밖에서 성장하고, 이곳저곳을 떠돌다 궁녀로 궁에 들어온 뒤 우연히 자신과 똑같이 생긴 세손을 만난다. 사헌부 집의의 아들 정지운은 궁녀 담이를 만나 호감을 쌓는다. 세손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담이와 옷을 바꾸어 입고 궁녀 복장으로 궁 밖으로 잠행을 나간다. 그러던 중 세손은 쌍생 여아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다시 죽이려 한 기재 세력에 의해 살해당한다. 실제 살해는 정지운의 아버지 정석조가 실행한다. 궁 안에 있던 담이는 어머니 세자빈의 뜻에 의해 죽은 남아 세손을 대신하여 세손 ‘휘’로 살아가게 된다.

담이가 ‘휘’가 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정지운은 담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세손의 사서로 들어오지만 담이는 정지운을 계속 멀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지운은 세손 담이에게서 계속 자신이 좋아했던 궁녀 담이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점점 세손 담이에게 끌리게 된다.

담이의 아버지가 즉위하면서(혜종) 담이는 세자가 되고, 담이는 명나라 사신단과 마찰을 빚으나 부당한 요구를 물리는 등 정치적 능력을 발휘한다. 세자의 국혼이 추진되고, 정지운은 세자 담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연심을 고백한다. 세자 담이를 보호하고 아끼는 종친 자은군 또한 세자가 궁녀 담이임을 알게 되고, 세자와 정지운 사이의 연심을 짐작한다.

부왕이 담이가 여자인 것을 확인하고, 담이를 폐세자하면서 궁을 떠나 본래의 삶을 살라고 한다. 담이는 궁을 떠나 ‘여장’하여 정지운과 함께 도망친다. 도망치던 담이는 화살을 맞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지운에

게 자신이 여자임을 밝힌다.

담이가 궁을 떠난 사이 부왕이 독살되고, 한기재는 담이가 아끼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담이에게 즉위할 것을 요구한다.

병조판서의 딸 노하경이 중전이 되고 중전은 ‘남편’인 담이에게 자신의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담이는 합방을 거부하며 합방일마다 두 개의 잠자리를 들인다.

국왕이 여자임을 의심하는 종친 원산군, 한기재 등 정적들의 압박이 심해지고, 담이와 정지운이 남색 관계라는 소문이 궁중에 퍼진다.

정지운은 자신이 사모하는 국왕이 여인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렸을 때 만나 좋아했던 ‘담이’인 것은 모르고 있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다.

담이는 한기재가 아버지 혜종을 독살한 배후임을 밝혀내어 체포한 뒤, 대비에게 자신의 비밀을 밝히고 양위의 뜻을 전하면서 중전에게도 자신이 여자임을 고백한다.

한기재가 원산군을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키고, 담이는 양위할 뜻을 밝힌다. 한기재가 담이에게 사약을 주고, 담이는 한기재에게 차를 건넨다. 독차를 마신 한기재는 죽고 담이는 살아난다. 궁궐의 난리는 담이를 아꼈던 자은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담이는 ‘팽형’을 당함으로써 ‘휘’로서의 생을 끝내는 대신 ‘담이’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궁 밖에서 정지운과 함께 살아간다.

드라마 역시 주인공이 남매 쌍둥이 중 여아로 태어나서 버려진 것, 남아가 죽게 되면서 어머니인 세자빈이 여아를 남아 대신 살게 하는 것, 주인공이 결연자와 남색의 소문에 휩싸이는 것, 정식 배우자로 맞이한 여성과 동침을 피하며 갈등하다 정체를 털어놓는 것, 권력을 권 외척과 갈등하고 왕위를 내놓게 되는 것 등은 만화와 다르지 않다.

다만 만화와 드라마의 차이로 우선, 실제 역사의 차용 정도를 들 수 있다. 만화에서 세조, 예종, 한명회, 자을산군, 제안대군, 경혜공주, 정미수 등 실존 인물들을 각색하여 주인공의 주변에 배치한 데 비해, 드라마는 모든 인

물들을 가상 인물로 설정하고 조선시대라는 배경만 유지했다. 만화와 달리 완전한 가상 역사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주변 인물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만화에는 ‘정통성에 대한 세조의 강박’, ‘외척 권신 한명회의 권력욕’, ‘경혜공주 아들 정미수의 유년 시절 은둔’ 등 캐릭터의 특성에서 실존 인물들의 행적이 연상되는 반면 드라마는 그렇지 않다.

쌍둥이 남매라는 설정과 관련하여 서사가 더 풍부한 것은 드라마이다. 드라마에는 주인공과 함께 출생한 쌍둥이 남아가 ‘실제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만화에서는 출생 이후 곧바로 세 살 때 원손이 죽었다고만 설명되고 남이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결연자 정미수가 처음 주인공을 만나는 것 역시 주인공이 이미 세손으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다. 반면 드라마에서는 세손과 주인공 담이가 열두 살 때 만나 남매지간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의 외모가 꼭 같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서로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남매는 서로 복장을 바꾸어 각자 궁녀(남아)와 세손(여아)으로 행세한다. 그러던 와중 담이를 제거하려던 세력에 의해 남아가 담이로 오인되어 살해되고, 이 때문에 담이가 세손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결연자 지운은 담이가 궁녀였을 때 처음 만나 연정을 느끼고, 이후 담이가 세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세손을 섬기게 된다. 결국 지운은 세손인 담이에게도 연정을 느끼고, 담이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남자를 사랑한다는 사실로 내적 갈등을 겪는다. 주인공이 쌍둥이 오빠를 대신하기 전 삶의 차이가 결연자와의 애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주인공 주변 인물들과 관련해서도 결말의 성격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만화와 드라마 모두 주인공이 쌍둥이 오빠를 대신하던 삶을 끝내고 결연자와 강호에 묻혀 살아간다는 결말은 동일하다. 다만 만화는 주인공이 퇴위하면서 그 비밀을 아는 중전 등 주변 사람들이 모두 살해되고, 악역 한명회가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암시된다. 주인공이 여자 ‘연선’으로서 정미수와 살아간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말에서 비극적 정조가 두드러

지는 것이다. 주인공과 결연자가 ‘유일한 생존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드라마에서는 비밀을 아는 중전도 살아남아 궁 밖에서 자신의 ‘남편’이었던 담이를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또한 악역 한기재는 죽고 담이와 정지운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직접 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행복한 결말’이 부각된다.

이외에 만화와 드라마의 차이를 더 거론할 수 있으나, 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부분만 추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준	만화 <연모>(원작)	드라마 <연모>
출생과 기아( )	왕실에서 쌍둥이 남매의 출생은 불길하다는 이유로, 여아가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할 위기를 넘기고 궁 밖으로 빼내어짐.	
여아 배제의 주동자	세조(조부)	왕(조부), 외척인 부원군 한기재
남매간 교류	없음. 세손이 3세 때 갑자기 죽고 여아가 세손을 대신하여 세손 ‘휘’로서 궁에서 성장함.	궁 밖에서 성장하던 여아 ‘담이’가 열두 살 때 궁녀로 입궁하면서 쌍둥이 오빠인 세손을 몇 번 만나지만, 남매지간임은 알지 못함.
시대 배경	조선 세조~예종~성종대. 예종과 성종 사이에 예종의 쌍둥이 자녀 중 딸이 남장하여 즉위했고, 몰려난 뒤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가상 역사를 설정함.	기본적으로는 조선시대이나 구체적 시기는 가상이며 모든 인물도 가상 인물.
주인공의 결연자	경혜공주의 아들이자 주인공의 호위무사 ‘정미수’	시강원 사서 ‘정지운’
결말	주인공은 왕위에서 몰려나 연인 정미수와 숨어 살아가며, 주인공을 조력해 온 종친 자은산군이 즉위함.	주인공은 왕위에서 몰려나고 ‘팽형’을 거쳐 사회적 존재를 지운 뒤, 정지운과 혼인하여 살아감. 주인공을 조력해 온 종친 자은군 ‘현’이 즉위함.

[표 1] 만화 <연모>와 드라마 <연모>의 비교

<연모>에서 주인공의 지난한 운명은 출생하자마자 여아라는 이유로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는 데서 시작된다. 만화와 드라마 모두 여아가 배제되는 이유를 ‘왕실의 쌍생은 불길하다’라는 남성 가부장의 말을 통해 제시한다. 만화에서는 쌍둥이 남매의 조부인 국왕이 “남녀가 유별하거늘 한 태에

서 함께 탄생한 것은 왕실의 거룩함이 더럽혀질 일이다. 예부터 왕실의 쌍생은 불길의 징조로 취급돼져 왔다. 그러니 여아는 생을 끊는 것이 옳다.”고 단언한다.<sup>15)</sup> 드라마에서도 쌍둥이 남매가 출생했을 때 이들의 조부인 국왕이 “왕실의 쌍생은 절대 불가하다”며 왕실의 쌍생이 왕의 반대파에게 빌미를 줄 것이고 “계집과 한 태에서 태어난 이들을 그 누가 감히 왕재로 인정하려 하겠느냐”는 이유를 내세운다.<sup>16)</sup>

다만 만화에서는 여아를 죽여야 한다는 세조의 말이 부각되고 실제로 여아를 살해하려는 장면은 구체화되지 않는다. 반면 드라마에서는 국왕의 말뿐만 아니라 세자빈의 아버지 한기재가 주도하여 여아 살해를 시도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한다. 담이가 왕이 된 뒤에도 한기재는 계속 왕을 견제하고 그 정체를 의심하면서, “민간과 달리 왕실은 쌍생을 불길의 징조로 여기지 않”느냐며 여아를 살해하려 했던 과거 행적을 정당화한다.<sup>17)</sup> 영상화를 통해 장면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드라마의 특성을 바탕으로, 여아 배제가 한층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만화와 드라마가 공통된 것은,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을 때 여아가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로 ‘남녀유별이 훼손되므로 불길의 징조이다’, ‘남아의 권위가 훼손된다’ 이상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왜 불길한지’, ‘왜 남아의 권위가 훼손되는지’에 대해서는 파고들지 않는다. 대신 쌍둥이들의 생모인 세자빈이 ‘딸이라고 해서 죽일 수 없다’는 모성애를 드러내며 여아를 지키고자 한다.

15) 이소영, 『연모』 1권(출판본 E-book), 대원씨아이, 2011, 25~26쪽.

16) 드라마 〈연모〉 1부 중 〈한희정, 『연모 1- 한희정 대본집』(E-book), 북로그컴퍼니, 2022, 42쪽.)

17) 드라마 〈연모〉 18부 중 〈한희정, 『연모 2- 한희정 대본집』(E-book), 북로그컴퍼니, 2022, 395~396쪽.)

**만화 출산 직후 친정어머니에게 여아를 살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세자빈**

“ 살려 주셔야 해요 . 꼭, 살려 주셔야 합니다 . 계집애로 태어난 것이 죽어야 할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니 .”<sup>18)</sup>

**드라마 출산 직후 여아를 살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세자빈과 거절하는 세자**

빈궁 : 계집애로 태어난 것이 죽어야 할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세요...

혜중 : (괴롭게 빈궁을 바라본다) 불가하오....

빈궁 : ! 당신 딸입니다. 저하의 아들과 한낱한시, 한 태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혜중 : 이미 주상전하의 어명이 내려졌소. 종실의 의견도 다르지 않소.

혜중, 스스로를 다잡듯 차갑게 빈궁과 아이를 스쳐 지나가면 그런 혜중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빈궁.

빈궁 : 아뇨! 아닙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인 저하의 뜻이 중합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저하께서 답해 주십시오!

혜중 : (멈춘다. 아이를 바라보는 혜중의 참혹한 표정) 나는... 나 역시! 이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버릴 것이오.

빈궁 : (! 충격으로 바라본다. 원망스러운)<sup>19)</sup>

그러나 세자빈 역시 시부 국왕의 ‘여아 배제’ 선언 자체를 반박하지는 못한다. 결국 ‘남녀 쌍생은 불길하고, 남아의 권위를 훼손한다’라는 명제 자체의 부당함은 만화와 드라마에서 깊이 논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화와 드라마에 공통되는 여아 배제의 ‘절대적 논리’, 쌍둥이

18) 이소영, 『연모』 1권(출판본 E-book), 대원씨아이, 2011, 23~24쪽.

19) 드라마 <연모> 1부 중 〈한희정, 『연모 1- 한희정 대본집』(E-book), 북로그컴퍼니, 2022, 43~51쪽.)

남매의 공존 불가능성은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등장인물들이 주어진 비극을 극복하면서 삶과 사랑을 이어 나가는 것이 만화와 드라마의 주요 서사인 한편으로, 이 논리 자체가 의심되지 않으며 일종의 ‘세계관’ 혹은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인식은 현대의 보편적 관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본고는 이 인식의 좌표를 가늠하기 위해 고전서사로 눈을 돌리려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을 전통 시대 ‘남존여비’ 사상의 반영으로만 이해한다면 여아를 굳이 죽이기까지 하려는 사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쌍둥이 남매 간 발생하는 복잡전환의 뿌리를 지나친다면 만화와 드라마가 이룩한 고전서사 모티프의 변용을 살피는 데 부족함이 있다. 고전서사로 들어가기 전 만화 드라마 〈연모〉에 대한 기본적 탐색을 이상으로 갈음하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고전서사의 여아 배제 및 쌍둥이 남매 모티프를 만화 드라마 〈연모〉와 비교함으로써 고전과 현대를 마주보게 하려 한다. 이를 통해 고전의 영향과 현대의 나아감 양면이 잘 드러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3. 고전서사를 통한 여아 배제 및 쌍둥이 남매 모티프의 이해

#### 1) 여아 배제의 근거와 결과: 〈오누이 힘내기〉 설화와 〈연모〉

한국 고전서사를 살펴보면, 남매 간 ‘갈등’이나 ‘배제’는 구비설화에서 찾을 수 있는 사항이다. 누이에게 성적 욕망을 느낀 오빠/남동생이 자살하거나(〈달래나 보지〉), 남매가 대결하여 한쪽이 죽거나(〈오누이 힘내기〉), 막내 여동생이 괴물 여우로 탄생하여 부모를 식인하고 오빠를 공격하는 경우(〈여우누이〉) 등이 그것이다. 남매가 ‘갈등하지 않는’ 설화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이 설화 역시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북방 신화 속 근친상간 금기로 인한 남매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sup>20)</sup> 그



가운데서도 ‘남매 중 여아의 배제’ 모티프는 〈오누이 힘내기〉에서 가장 뚜렷이 확인된다. 서사 내용이 ‘남매 중 여아의 배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누이 힘내기〉는 남매의 대결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 유형들로 분류할 수 있다. 누이가 성을 쌓는 동안 오빠/남동생이 서울에 다녀오는 ‘성쌓기형’, 누나가 옷을 짓는 동안 남동생이 인근 산에 다녀오는 ‘옷짓기형’, 남동생이 만용을 부리자 누나가 남장하고 씨름시합에 나가 남동생을 이겨 교훈을 주는 ‘씨름시합형’이 그것이다. ‘씨름시합형’을 제외하고 ‘성쌓기형’과 ‘옷짓기형’은 모두 누이/누나 쪽이 패배하는데, 그 이유에 여성에 대한 배제가 관련되어 있다. ‘성쌓기형’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살려야 한다’며 누이를 방해하여 패배하게 하며 ‘옷짓기형’은 누나가 스스로 ‘내가 남자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 승부를 포기한다.

보다 ‘강제적’인 여아 배제는 ‘성쌓기형’에서 나타난다. 대결의 결과가 여아 배제이기도 하거니와, 대결의 동기가 부연될 경우 대결의 ‘목적’부터가 여아 배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남매 장사가 공존할 수 없다’, ‘한 집안에 장사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언술을 일부 각편의 담화에서 뚜렷이 발견할 수 있다. 남매가 목숨을 걸고 대결하는 이유가 본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나 내기의 발생을 납득하기 위해 이야기판에서 ‘국가의 명령’ 등의 명분이 덧붙기도 한다. 이때 먼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여아인 것이다. 그런데 자신과 동등한 능력을 지닌 누이를 제거하였음에도 오빠/남동생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역적이 되었다든가, 어머니의 부당한 개입을 알고 실망하여 세상을 버렸다는가 하는 후일담 또한 존재한다. 즉 남매의 공존 불가능성은 곧 여아 배제의 당위성과 동일한 의미로 읽힐 정도로 두 논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편, 여아 배제가 곧 남아의 ‘안전’, ‘성공’을 보장할 수

20) 조현설, 「〈해와 달이 된 오누이〉형 민담의 창조신화적 성격 재론」,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2007.

없다는 균열 역시 나타난다.<sup>21)</sup>

그리고 만일 남매가 쌍둥이라는 점이 분명히 언급될 경우 남매 간 능력의 ‘동등함’은 한층 강조되는 바, 이는 소위 ‘겉경사’가 아니라 ‘불길함’이 곱절인 사태로 이해된다.

남매 장수의 내기와 묘순이 바위(1)

그 둘이 살았는디, 거기두 남매 쌍둥이, 오나가나 남매 쌍둥이든, 한 집안에 장수가 둘 나오르는 역적질 험다구 하나가 죽어야 허잖유. 그것이 운명이유. 집안 가문을 잇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하니까. 거기에서두 뭐여 여자가 하나 죽게 되잖유. 부모 입장에서는 여자는 시집가든 그민이지, 가문을 못 잇잖어. 남자 성을 따라야 하니까.

음 그러니까 인저 이 부모 입장에서는 큰 걱정여. 기회를 봐 갖구 이 딸을 직일리구 보니, 차마 천륜으로써 이, 그것은 못 허지. 그래두 인저 국가에서 인저 엄명이 내려왔네. 거기서 인저, 거기 뭐여, 국가에서 조사하잖여. 수소문해 갖구, 전부 일일이 조사하잖어. 여기 장수가 둘 나온 집이 있느냐. 여기두 인제 당장 걸렸어. 안 직이은(죽이면) 역적으루 다 몰리게 생겼어. (후략, 밑줄은 인용자)<sup>22)</sup>

모선이(묘순이) 바위

전설은 벼랑 없고, 말하자면 모-선이가 쌍둥인데, 여자 하나 남자 하나를 낳거든(낳았거든). 그러께 참 그계 세상에 남자를 둘 낳으면 괜찮구, 여자를 둘 낳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싸우고 힘자랑을 허구 불안해 어머니가. 그래서 이 성을 쌓다가 저기는디 남매가 이 성을 쌓는데, 전설이쥬. 쌓는디 아들을 살리야지 딸을 죽이고 (중략) 인제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이런 쌍둥이를 낳는데

21) 이상 두 문단은 김준희, 「〈오누이 힘내기〉 설화 연구: 담론 층위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에서 논의한 내용 중 ‘여아 배제’를 이해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사항을 간추려 작성하되, 유형명은 김준희, 「남매관계 설화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에서 발전시킨 바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22) 〈남매 장수의 내기와 묘순이 바위(1)〉, 성부제(남, 51) 구연, 충남 예산군 신앙면, 1999.6.30. 조사, 『한국구전설화집』 10, 117~118쪽.

낳을 때는 남자 둘을 나면 불안이 없지마는 여자하고 남자 둘을 낳았으니께 내 적으루다가 불안이 있을 거 아니유. 그래서 여자를 그 어머니가 성을 쌓게 하고 (후략, 밑줄은 인용자)<sup>23)</sup>

위 인용문에서 보듯, ‘남자든 여자든, 쌍둥이라면 동성( )의 쌍둥이로 태어나야 하며 이성( )으로 태어나면 안 된다’면서 남매 중 하나가 죽어야 하는 명분이 나타난다. 여기서 쌍둥이란 완력이 동등한 존재가 동시에 둘이나 태어난 사태를 강조하는 요소가 된다. 역적으로 몰릴 걱정, 가문 계승에 대한 걱정 역시 ‘성쌓기형’ 〈오누이 힘내기〉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여성 제거’의 명분이다.<sup>24)</sup>

한편, 드물지만 남매가 공존할 수 없는 이유를 위와 다르게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아래 인용문은 남매가 쌍둥이로 등장하는 각편의 일부이다.<sup>25)</sup>

#### 구물레 구장군

(전략) 저 구장군이 쌍둥이랍니다. 게 구장군이요 쌍둥이가 하난 여자구 하난 구장군이요 구물레 장군. 그런데 옛날에 쌍둥이가 나며는 남자가 들되면 남자가 들 여자가 들이면 여자가 들되이지 남자하구 여자하구 둘 나며는 옳으며 하나는 없애야 된다 그 말이유. 그건 못 쓴다 집안 망하는거다 그런헌 아주 생각하다가 어 말하자면 뭐여 아주 미신적으로 그 믿어 믿어버린 그리헌 윤리관이가 있어요. 청중 : 생피 붙는다는거 하며 웃는다. 응 생피 붙는다 응 생피 뺀다 그러이께 아주 집안을 망친다. 건데 그 구장군이 그 남매

23) <모선이(묘순이) 바위>, 남성 화자(당시 91세) 구연, 충남 예산군 대흥면, 2015. 1. 30. 조사, 필자·윤준섭·양이문 채록. (이 자료는 김준희(2016), 앞의 논문, 164~165쪽에 수록되어 있다.)

24) <오누이 힘내기〉에 등장하는 ‘내기의 명분’에 대해서는 김준희(2016), 위의 논문, 40·94~95쪽 참조.

25) 김자현, 「한국의 쌍둥이설화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32~34쪽에서도 <구물레 구장군〉을 ‘쌍둥이’ 남매 이야기로서 주목한 바 있다.

가 저 그거거든 쌍둥이거든.

그래서 어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돼요. 건데 구장군은 그렇게 용기가 있구 무술이 뛰어나구 참 아까운 인젠데 그 뉘이(누이)는 또 구장군 못지않게 재주가 비상해요. 강조하듯 힘주어 말한다. 또 무술도 훌륭하고, 그래 그 어머니가 내기리 시켰어요.

“그 뉘와 구장군이 내기를 해라. 그래서 지는 사람은 어 죽기다.” (후략, 밑줄은 인용자)<sup>26)</sup>

위 인용문에서 한 청중이 ‘생피 붙는다’고 한 말은 가부장제의 여성 배제와는 다소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에 주목을 요한다. ‘생피 붙는다’는 것은 곧 ‘상피( ) 붙다’로 이해할 수 있는 바, 이는 가까운 친족 남녀 사이에서 육체관계가 발생하는 일을 가리킨다. 청중이 이를 언급하자 화자 역시 동의한 것을 볼 때 ‘남녀 쌍둥이가 나면 근친상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속신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설화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남매 중 하나가 제거되는 명분의 일종이나, <달래나 보지>, <홍수와 남매혼(남매혼 홍수신화)>과 달리 <오누이 힘내기>와 근친상간 금기의 관련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쌍둥이 남매는 근친상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제거해야 하므로, 그 방법으로써 남매를 대결시킨다’라는 발상을 다른 각편에서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sup>27)</sup>

그러나 자료의 예외성과 상관없이 확실한 사항은, 국가에 의해 역적으로 지목되든 근친상간의 속신 때문이든 쌍둥이 남매에 대한 기피의 결과가

26) <구물레 구장군>, 김형창(남, 61), 구연,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1980.6.18. 조사, 『한국구비문학대계』 4-1, 461~463쪽.

27) 선행연구에서 쌍둥이 남매간 근친상간 금기를 이야기하는 구비전승이 ‘남매애정형’으로 소개된 바 있다. (김자현(2007), 앞의 논문, 34~38쪽.) 다만 해당 연구에서 소개한 각편이 『한국구비문학대계』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은데다 남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달래나 보지>, <오누이 힘내기>, <홍수와 남매혼>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고의 본격적 논의 대상으로는 다루지 않았다.

항상 남아를 선택하고 여아를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여아를 배제함으로써 남아를 선택한다는 점은, 이 설화에서 여아를 배제하는 이유가 그저 ‘여아를 제거하기 위해’ ‘여아를 혐오하므로’가 아니라 ‘남아를 보호하기 위해’임을 보여준다. 지는 사람은 죽는 것이 대결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아가 승리하면 남아가 죽게 된다. 그런데 집안에 장수가 하나만 있으면 역적의 의심을 받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앞서 언급한 오빠/남동생의 실패 후일담뿐만 아니라 주지의 〈아기장수〉와 같은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다.

물론 〈오누이 힘내기〉의 남매 관계는 나이 서열이 존재하는 남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설화문학에서 남매라는 설정 자체가 곧 쌍둥이 남매, 능력과 속성이 같은 단일체, 분리 전의 양성구유적 존재 등을 상징한다는 지적<sup>28)</sup>을 상기하면, 남매의 능력이 비등한 ‘성쌍기형’을 통해 외모가 동일하다고 여겨진 쌍둥이 남매를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김영희 역시 〈오누이 힘내기〉의 남매가 ‘쌍둥이 신’, ‘쌍둥이 영웅’에 원형을 두고 있다고 본 바 있다.<sup>29)</sup> 남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보는 경향이 우세하기에, 쌍둥이 남매 중 여아의 배제를 ‘성쌍기형’의 여아 배제와 동궤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sup>30)</sup>

28) 나경수, 『한국의 신화 연구』, 교문사, 1993, 311~313쪽; 이지영, 「〈오누이힘내기 설화〉의 신화적 성격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247쪽.

29) 김영희, 「“여성 신성”의 배제와 남성 주체의 불안-〈오누이힘내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3, 33·48·50쪽.

30) 남매가 나이 서열 없이 ‘쌍둥이’라고 분명히 언급되는 각편은 『한국구비문학대계』뿐만 아니라 『한국구전설화(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집』까지 포함했을 때, ‘성쌍기형’의 5% 남짓 발견된다. 한편 누나가 옷을 짓고 남동생이 인근 장소에 다녀오는 ‘옷짓기형’에서는 남매 간 나이 서열이 누나와 남동생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유형에서는 ‘씨름시합형’이 사전 삽화로 개입되지 않는 이상 누나가 완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 장사의 공존 불가능’ 자체가 언급되기 어렵다. (김준희(2016), 앞의 논문, 28~29·69~76쪽.) 이에 ‘여아 배제’를 우선 ‘성쌍기형’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여아에 대한 배제가 (대를 이을, 가문을 계승할) 남아에 대한 보호 명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오누이 힘내기>와 <연모>를 함께 놓을 수 있다. <연모>에서도 ‘왜’ 쌍둥이 여아의 존재가 남아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채 여아 배제가 실행된다. 앞서 살폈듯, 만화에서 주인공의 조부인 국왕은 남녀 쌍생이 ‘남녀 유별’을 해치기 때문에 불가하며, 남아와 여아가 한 태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무효화하기 위해 여아를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드라마에서는 남아의 권위 문제가 ‘왕재로서의 인정’과 관련되어 더욱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만화와 드라마에서 왕실과 민간 인식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그와 관련된 풍속 등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쌍둥이 자체를 기피하는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쌍둥이 출생이 인정될 수 없다면 왕제가 될 남아를 위해 여아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양상 역시, ‘왜’ 남매가 대결해야 하는지 구체적 명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역적으로 몰릴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의 명분이 부여되고 여아 배제가 실행되는 <오누이 힘내기>와 닮아 있다.

여아 배제로 인해 <연모>에서 주인공의 출생과 존재 자체는 ‘분명히 존재함에도 없는 것처럼’ 취급된다. 만화와 드라마에서 모두 여아는 살해 위협을 피해 살아남았음에도 ‘죽었어야 할’ 존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성은 여아가 ‘남아로서’ 산 삶에도 적용된다. “감추어진 왕. 역사에서 철저히 사라져야만 했던 비극의 왕. 나의 왕의 이야기다…….”<sup>31)</sup>라는 만화의 결연자 정미수의 독백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이 ‘휘’로서 행했던 정치, 그의 치세 자체가 없던 것으로 취급되는 결말은 여성 왕이 존재할 수 없다는 남성 중심 왕위 계승의 ‘법’이 계속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주인공이 여성 왕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쌍둥이

31) 이소영, 『연모』 1권(출판본 E-book), 대원씨아이, 2011, 18~20쪽.

중 여아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아라는 존재 자체에 이유가 있다. 쌍생이 아닌 채로 출생했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여성의 삶을 원하면서도 남성 ‘휘’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활용하여 부왕의 죽음에 얽힌 독살을 밝혀내고,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람들의 사정을 돌보는 등 왕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휘’라는 왕의 기록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그가 남성의 모습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보인 능력까지도 ‘존재했지만 부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인공의 이러한 존재성 역시 <오누이 힘내기>의 누이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오누이 힘내기> ‘성쌍기형’의 누이에게는 분명히 완력을 지녔음에도 완력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부인( )당하는 기제가 잠재되어 있다. ‘부인’은 본디 단언하면서 부인하고, 원하면서 원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등의 무의식적 기제로<sup>32)</sup>, 설화의 심층을 해석하기 위해 차용할 수 있는 정신분석학의 개념이다.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 배제가 실현되는 <오누이 힘내기>의 경우, 여성의 완력이 부인의 대상이 된다. 다만 <오누이 힘내기> ‘성쌍기형’에서 누이의 완력이 부인되고 ‘웃짓기형’에서는 아예 드러나지도 않는 반면, <연모>에서 주인공은 결말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한다.<sup>33)</sup>

이에 <오누이 힘내기>와 <연모>는 부인의 극복 가능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드라마에서는 형식적 ‘팽형’을 통해 주인공이 남성 ‘휘’의 사회적 죽음을 받아들이고 여성 ‘담이’로서 신원을 회복하는 것이 강조된다. 그리고 이 ‘회복’은 가부장제 속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결연자와 ‘동등한’ 관계에서 애정을 지속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지

32) 브루스 핑크, 『라캉의 주체: 언어와 향유 사이에서』, 이성민 역, 도서출판 b, 2010, 86쪽.

33) 이상 <오누이 힘내기>의 ‘부인’에 대해서는 김준희(2021), 앞의 논문, 178~181·193~199쪽 참조.

운은 약초를 캐고, 담이는 활을 쏘아 사냥을 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간다. 바닷가에서 담이는 “바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늘 궁금했는데 (중략) 이젠 너머의 삶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대로도 충분히 좋으니까요.”라고 왕위와 남성의 모습을 모두 버린 뒤의 삶에 만족감을 드러낸다.<sup>34)</sup> 주인공은 남아에 의한 ‘정상적’ 왕위 계승을 요구하는 왕실의 속박을 벗어나 출생, 신분 그 무엇과도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아 세손의 죽음과 부왕의 독살 등은 주인공에게 분명 시련과 위기로 작용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아의 존재에 의존하는 가부장제적 왕위 계승의 취약함을 노출하는 사건이 된다.

이와 같은 ‘여아 배제와 남성 인물들의 관련’ 역시 <오누이 힘내기>와 <연모>를 견주어 보게 한다. 앞서 <오누이 힘내기>에서 여아를 배제하였음에도 오빠/남동생을 중심으로 한 가문의 존속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연모>에서 또한 가부장 국왕들은 여아를 배제하여 남아의 권위를 세우고자 한다. 그러나 만화와 드라마에서 결과적으로 왕실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은 여아의 존재가 아니라 왕을 독살하고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외척 권신의 존재이다. 노회한 남성 신하이자 외적인 한명회(만화)/한기재(드라마) 및 왕위를 탐내는 종친 남성들이 건재한 이상, ‘남아에 의한 왕위 계승’을 완수해야 하는 왕실의 가부장 권력은 몹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오누이 힘내기>와 <연모>는 모두 ‘여성을 배제하였음에도 안전하게 존속할 수 없는 남성 중심 권력’의 모순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드라마에서는, 흥미롭게도 ‘구비전승 이야기관’이라는 소재를 통해 주인공에 대한 부인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주인공이 왕위를 떠난 뒤 주변 사람들이 맞는 운명의 차이와 관련된다. 만화에서는 여성이 왕

34) 드라마 <연모> 20부 중 (한희정, 『연모 2- 한희정 대본집』(E-book), 북로그컴퍼니, 2022, 494쪽.)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 대부분이 살해당한다. 반면 드라마에서는 중전이 궁 밖에서 살아가며 담이를 그리워하고, 여성들이 주 청중인 이야기관으로부터 “백옥처럼 아름답고 강철처럼 단단한 여인이 용상에 올라 부정으로 얼룩진 백관들의 부패를 모두 밝혀내고는 이슬처럼 (중략) 영롱한 가미술 물에 풍당 ‘팽형’을 언도받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전설의 여인 이야기”가 생겨난다.<sup>35)</sup>

이는 만화와 드라마에서 각각 주된 악역을 담당했던 한명회와 한기재가 다른 결말을 맞은 것과도 연결된다. 한명회가 여전히 권력을 쥔 상태에서 새 왕이 즉위하는 만화와 달리, 드라마는 담이가 왕위를 버리기 전 한기재를 독살하기에 주변 인물들의 운명 역시 달라질 여지가 생긴 것이다. 지금도 당연한 결론일 수 있지만, 여아 배제에 동조했거나 그를 주도했던 남성 권력자의 그림자가 결말에서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주인공에 대한 인정도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왕실, 조정, 국가 권력 등을 인정 주체로 본다면 여전히 주인공은 ‘인정받지 못한 존재’이다. 그러나 주인공이 더 이상 그 집단으로부터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인공에 대한 인정의 주체를 사회적 공식적 권력에서만 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때 여아 배제를 주도했던 남성 권력자가 사라져 ‘여성 왕’의 비밀을 철저히 ‘단속’하지 못한 경우, 주인공에 대한 기억 역시 살아남을 여지가 커진다. 드라마의 결말에서 ‘전설의 여인 이야기’ 이야기관이 시작되는 것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 사라진 자리를 ‘전설의 여인 이야기’가 채우는 것이다.

이상으로 남매관계 설화 중 <오누이 힘내기>에 나타난 여아 배제의 기제, 모순, 결과 등을 살펴보면 <연모>의 여아 배제 모티프를 논의하였다. 이어서는 ‘외모가 매우 흡사한 쌍둥이 남매’와 관련하여 고소설의 해당 사

35) 드라마 <연모> 20부 중 <한희정, 『연모 2- 한희정 대본집』(E-book), 북로그컴퍼니, 2022, 489~490쪽.)

향을 살피도록 하겠다.

## 2) 쌍둥이 남매 간 외모의 동일성

: 쌍둥이 남매가 등장하는 고소설과 〈연모〉

고소설에서는 설화와 달리 (쌍둥이) 남매 간 경쟁의 서사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한편으로 쌍둥이 남매의 ‘외모’가 동일인처럼 흡사했다는 것은 설화가 아니라 고소설 작품에서 나타나기에, 고소설 또한 〈연모〉를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앞서 구비설화에서는 쌍둥이 남매가 비교적 드물게 나타났다. 반면 고소설에서는 〈창선감의록〉을 비롯하여 〈정진사전〉, 〈남강월전〉, 〈쌍련몽〉, 〈최보운전〉 등에서 남매가 쌍둥이로 등장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서사를 따로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쌍둥이 남매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sup>36)</sup> 고소설의 쌍둥이 남매와 관련해서는 정선희의 연구가 크게 참조된다. 정선희는 〈창선감의록〉에서 쌍둥이 남매 중 남동생인 윤여옥을 중점적으로 살폈는데, 해당 작품에서 쌍둥이 남매라는 설정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쌍둥이 남매에 대한 현대 이전의 인식까지 검토하였다.<sup>37)</sup> 또한 강우규가 〈유효공선행록〉의 쌍둥이 형제 간 갈등을 살피며 ‘신화시대’부터

36) 본고에서 언급하는 작품들의 내용은 다음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작성했음을 밝힌다. 김기동·전규태 공편, 『남윤전 정비전 남강월전』, 서문당, 1984(〈남강월전〉); 조동일 편, 『조동일 소장 국문학연구자료』 제27권, 박이정, 1999(〈쌍련몽〉); 신해진 선주, 『조선 후기 가정소설선』, 월인, 2000(〈정진사전〉);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자료 총서 IV : 고전소설 줄거리 집성』 제2권, 집문당, 2002, 1454~1459쪽(〈최보운전〉); 정길수 역, 『창선감의록』, 돌베개, 2021(〈창선감의록〉).

위 자료들에 더하여,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 등장인물 사전』(지식을만드는지식, 2014)의 내용이 크게 참조되었다. 이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고전소설 캐릭터 사전 DB』(<http://waks.aks.ac.kr/rsh/?rshID=AKS-2007-HZ-3001>)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37) 정선희, 『윤여옥의 활약을 중심으로 살핀 〈창선감의록〉의 주제 구현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3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의 쌍둥이 모티프를 지적한 점 역시 본고에 일정한 시사점을 주었다.<sup>38)</sup> 아래에 〈창선감의록〉의 일부를 제시하여 고소설 속 쌍둥이 남매의 예시를 살펴보겠다.

**창선감의록 - 주변 사람들도 착각할 만큼 외모가 흡사한 윤여옥, 윤옥화 남매**

잠시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계화가 문틈으로 엿보니 난데없이 윤부인이 비단 도포 차림에 오건을 쓰고 청려를 탄 채 문 앞에 있고, 그 뒤로 네댓 명의 하인이 서 있었다. 계화가 매우 기뻐서 양운에게 말했다.

“윤부인이 오셨어요!”

양운이 깜짝 놀라 손뼉을 치며 신기해했다. 양운과 계화가 나귀 앞으로 나가서 맞아 안방으로 안내한 뒤 말했다.

“부인, 부인! 어떻게 몸을 빼서 이리로 오셨습니까? 또 저 나귀와 하인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사람이 놀라 말했다.

“나더러 부인이라니, 이 무슨 말인가?”

(중략)

“자네들은 필시 나를 닮은 부인 생각에 나를 그 부인으로 착각하고 있군그래! 나는 산동의 윤공자야. 내 누이가 화상서의 며느리가 되어 월왕성 아래 살기에 지금 여기서 말을 먹이고 화부로 향할까 해서 우연히 자네들 집에 온 걸세.”

양운이 말했다.

“옳거니, 옳거니! 예전에 윤부인께 쌍둥이 형제가 있어 용모가 흡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자께서 바로 그분이시구먼요?”

여옥이 그렇다고 하자 계화가 웃으며 말했다.

“어쩐지 저도 윤부인 치곤 키도 조금 크고 손도 조금 더 커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sup>39)</sup>

38) 강우규, 「〈유효공선행록〉 쌍둥이 형제갈등의 양상과 의미 고찰」, 『우리문학연구』 64, 우리문학회, 2019.

고소설의 쌍둥이 남매 설정은 곧 ‘외모의 유사성’과 같은 의미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유사성은 쌍둥이 남매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인들의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쌍둥이 남매 간 외모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기보다 서사 전개를 위한 ‘인위적’ 장치일 수 있다. 외모 등 신체적 특징이 동일한 쌍둥이라면 동성( )의 일관성 쌍둥이어야 한다. 쌍둥이 남매는 이관성 쌍둥이이기에, 동기간으로서 외모가 유사할 수 있어도 일관성 쌍둥이의 수준으로 신체적 특징이 동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보듯, 쌍둥이 남매 간 외모의 유사성은 ‘완전히 동일함’의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확히는 ‘실제로 동일함’이기보다 ‘타인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이 중요하다. 쌍둥이 남매 간 외모의 유사성을 활용한 사건들은 결연담의 복선으로 작용하기도 하고<sup>40)</sup> 흥미를 높이고 도덕적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sup>41)</sup>

그런데 고소설에서 남매 간 ‘복장전환’은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남자 형제가 자신의 누이로 여장한다고 하여 그의 삶 자체가 동요하는 경우는 없다. 윤여옥이 누이를 모방하여 여장한 일로 윤여옥으로서의 삶이 ‘윤여옥의 모습’에 압도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연모>에서는 모방 대상인 남아가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주인공은 ‘가짜’인 ‘복사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복장전환에서 일어나는 ‘모방’에 주목한다면 <연모>에서 주된 복장전환은 여아가 남이를 ‘모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남매가 복장을 전환할 때 남매 한쪽이 ‘모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고소설의 쌍둥이 남매들과 닮은 지점이다. 그러나 주인공에게 있어 ‘휘’로서의 삶은 여아

39) 정길수 역, 『창선감의록』, 돌베개, 2021, 191~192쪽.

40) 송주희, 「〈정진사전〉에 나타난 결연담의 서사적 기능과 그 의미」(『어문연구』 70, 어문연구학회, 2011, 203쪽.

41) 정선희(2015), 앞의 논문, 198쪽.

로서의 삶을 억압하게 된다. 주인공은 죽은 오빠로 행세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가 성장할수록, 즉 죽은 오빠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수록 누구를 ‘모방’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의 문제 역시 더욱 모호해진다. 주인공은 ‘원본이 없는 복사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sup>42)</sup>

〈연모〉에서도 쌍둥이 남매라는 설정은 ‘외모의 동일성’과 같은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 만화와 드라마에서 모두 외모의 동일성은 여아가 남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근거가 된다. 특히 드라마에서는 유년기의 쌍둥이 남매가 대면하는 장면을 삽입하고 같은 배우가 1인 2역을 연기함으로써, 쌍둥이 남매 간 외모의 동일성이 복잡전환의 성공을 좌우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대본의 설명과 세손의 대사 등을 통해 작가 역시 외모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남아가 직접 자신과 ‘답이’가 몹시 닮았다는 점을 발화한다.<sup>43)</sup>

그러나 필자가 ‘-다고 간주되는 근거’라고 서술한 것은, ‘남아의 대체’를 주도한 어머니 세자빈 등이 그렇게 간주한 반면 실제로는 그 대체가 완벽히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아가 성장하면서 ‘사내라고 하기엔 너무 고운’ 외모를 지녀 구설에 오르는 것은, 성장하면서 남아와 공유‘할 수 없는’ 여성성이 표출된 결과다. 즉 쌍둥이 남매 간 ‘외모의 동일성’은 주인공이 궁궐 안에서 살게 되는 이유가 되나, 성장하면서 드러난 ‘성의 차이’는 주인공의 삶이 위협되고 계속 정체 노출 위기에 시달리는 이유가 된다.

정리하면, 만화와 드라마 모두 쌍둥이 남매 간 ‘외모의 동일성’에서 서사

42) 드라마에서 남아 세손과 여아 답이가 교류하는 장면이 등장하더라도 이것을 남매 간 우애 혹은 화합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드라마에서 세손과 답이는 서로의 존재를 ‘신기해’했을 뿐 자신들이 동기간이라는 의식에 바탕하여 옷을 바꾸어 입고 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답이가 세손의 뜻에 따른 것은 궁녀로서 세손의 명을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3) 드라마 〈연모〉 1부 중 〈한희정, 『연모 1- 한희정 대본집』(E-book), 북로그컴퍼니, 2022, 52~55쪽.

가 출발하나 남매 간의 필연적 ‘다름’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나아간다. 본연의 삶에 대한 욕망 및 군주로서의 책임감 사이 내적 갈등도 이와 함께 심화된다. 다시 말해 쌍둥이 남매 간 흡사한 외모로 인해 복장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소설과 유사하나, 복장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것이다.

만화와 드라마에서 모두 쌍둥이 오빠를 ‘대신’하는 삶에 대하여 주인공은 지속적으로 심적 고통을 겪는다. 악인 권력자들은 주인공의 정체를 의심하고 이로 인한 불안이 증폭된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만화와 드라마 서사 내내 등장한다. 이때 ‘본연의 삶’에 대한 주인공의 갈망은 곧 ‘여성으로서의 모습’, ‘여장’에 대한 갈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갈망은 주인공이 여성의 옷, 신발, 장신구 등을 착용하거나 궁녀 복색을 차리는 장면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 만화 경혜공주 사후 여묘살이하는 연인 정미수를 만나러 가며 궁녀 복색을 차린 주인공

“내가 처음으로 입어본 여인의 옷이었다 . 두려웠다. 사내로 살면서 나의 것이 아니라 외면한 것들 아니었느냐. 그 금지된 것을 받아들일 때 솔직히 두렵고 무서웠다. 하지만 보여주고 싶었어 미수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sup>44)</sup>

이러한 설명이, 주인공이 수행한 ‘남성 통치자의 역할’이 완전히 그 자신으로부터 외면받았다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한 역할 수행 또한 주인공의 정체성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지속적으로 ‘속여야 하는 삶’은 주인공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이다. 주인공은 세손-세자-국왕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왕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해명해야 한다는 등의 책임감 역시 지니게 된다. 남성으로서의 삶 속에서 주인공은 이러

44) 이소영, 『연모』 9권(출판본 E-book), 대원씨아이, 2011, 98쪽.

한 역할 수행의 세부 국면을 ‘선택’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왕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조사하는 것은 계속 자신에 대한 공격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공격은 의도했던 아님도 결국 주인공의 정체,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는 결과로 이르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남성 통치자로서의 욕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욕망은 ‘숨기지 않는 삶’에 대한 욕망보다 우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 본다. 즉, 주인공이 여성으로서의 삶을 갈망했다는 것은 ‘남성이 아닌 삶’을 바랐다는 의미도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숨기지 않는 삶’을 갈망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sup>45)</sup>

이상으로 남매관계 설화인 〈오누이 힘내기〉와 쌍둥이 남매가 등장하는 고소설을 살펴보면 여아 배제와 쌍둥이 남매 모티프의 ‘근원’을 탐색하고, 해당 모티프의 현대적 변용 측면에서 〈연모〉가 이룬 것은 무엇인지 고찰하

45) 아울러 본고에서 살핀 고소설 작품들에서는 적어도, 쌍둥이 남매 출생에 대한 기괴는 뚜렷하게 찾을 수 없었다. 앞서 구비설화에는 쌍둥이 남매에 대한 근친상간 우려가 등장하기도 하였고, 이유를 굳이 대지 않더라도 들은 공존할 수 없다는 등의 강력한 발화가 등장하였다. 물론 소설 속 주변 인물과 사회의 인식이 실제 사회를 완전히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구비설화의 ‘거역할 수 없는 대결 명분’과 같은 강력한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다. 대신 쌍둥이 남매를 둘러싼 ‘비범한 출생’, ‘초월적 조력자의 도움’ 등의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령 〈최보운전〉에서 최보운과 최벽도 쌍둥이 남매는 부친이 오십이 넘도록 자식을 두지 못하자 큰 돈을 시주하고 얻은 자식이며, 〈쌍련몽〉에서는 ‘순양진인’이 쌍둥이 남매를 점치고 이들의 조력자로서 활약한다. 이에 고소설의 경우 작품 속에서 쌍둥이 남매의 출생과 존재가 기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정선희는 민간의 쌍둥이 남매 기괴 미신에도 불구하고 〈창선감의록〉의 작가가 ‘대담하게’ 쌍둥이 남매 설정을 도입했다고 본 바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1930년대 신문기사 속 쌍둥이 남매에 대한 미신을 소개했는데, 이는 구비설화 각편에서 보았던 ‘상피 불다’에 대한 염려와도 일치한다. (정선희(2015), 앞의 논문, 197~198쪽.) 그러나 이 염려가 계층에 따라 상이했을 가능성도 있는 바, 김자현은 상층과 하층에서 쌍둥이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랐으며 하층에서 쌍둥이 출산을 꺼린 이유는 양육의 부담에 있다고 보았다. 『조선왕조실록』 등을 검토하였을 때 상층에서는 쌍둥이 출생을 꺼리지 않았으며 쌍둥이 중 하나를 버리는 ‘기어( ) 선택’ 역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자현(2007), 앞의 논문, 14·56·58~59쪽.)

였다. <오누이 힘내기>와 <연모>의 여아 배제 모두 남매를 공존 불가능한 관계로 보고 남아를 보호하기 위해 여아를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졌다. 또한, 여아가 배제되더라도 남성 중심 가부장제나 남성에 의한 계승이 여전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성 인물에 대한 ‘부인’에 있어서는 <연모>가 수용과 극복의 서사를 모두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다. <오누이 힘내기>의 전승은 결국 여아 배제의 서사 자체를 계속 수용하는 반면, <연모>는 작품 내에서 주인공이 직접 그 모순의 일부를 극복하면서 살아남는다.

요컨대 <연모>는 남매 갈등 설화에 나타난 여아 배제의 주요 조건과 경과를 (의도적이든 아니든) 계승하되, 설화에서 여아 배제의 무의식적 기제가 된 ‘부인’을 극복함으로써 모티프의 현대적 변용을 이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쌍둥이 남매’ 모티프와 관련해서는, ‘외모의 동일성’을 주요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연모>가 <창선감의록> 등의 고소설 작품과 공유하는 맥락을 발견할 수 있었다. 드라마에서 남아와 여아가 서로 비슷한 외모를 신기해하며 복장전환한 뒤 주변 인물들을 속이는 장면에만 한정한다면, 남매가 복장전환하여 주변 인물에게 장난을 걸거나 하는 고소설과 견주어 볼 부분도 있다. 그러나 여아가 남아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쌍둥이 남매를 다룬 고소설보다 ‘여성영웅소설’들을 살펴 논의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지면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면, <연모>는 쌍둥이 남매 간 ‘동일성’이 강요되다 개별성이 인정되는 이야기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왕실이라는 특수한 배경 하에 쌍둥이 여아에게 남아와 동일한 삶이 강요되지만, 여아는 끊임없이 남아와 다른 삶을 추구하고 종국에 그를 성취함으로써 개별성을 보존한다. 이 개별성을 보존하게 되면서 <연모>의 주인공은 <오누이 힘내기>와 유사한 여아 배제의 그림자에 계속 갇히지 않고 왕실의 혈연, 왕족의 신분 등으



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얻어 낸다. 이에 〈연모〉에서 성취되는 남매 간 개별성이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녀가 유별한’ 역할을 수행하여 얻어지는 개별성이 아니라 개별 존재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인공이 결국 ‘왕실의 여아’로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필부( )처럼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말을 ‘한계’로 독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인공이 본래 속했던 가족은 모두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조부 외조부 친부가 모두 출생 시 여아를 주도적으로 배제했거나 배제에 동조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주인공이 겪는 ‘단절’은 분명 혈연과 권력의 상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혈연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 주인공이 혈연으로부터의 단절을 감행하고 그 공백을 결연자와의 수평적 애정으로 채우는 결말은, 관점에 따라서는 지극히 현대인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허구의 ‘문학’으로 존중하고, 고전서사의 모티프들이 주요 틀을 유지하되 변용된 모습을 인정할 때, 지속적 변용과 계승의 실마리도 남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때 현대적 관점에서 성취된 ‘개별성’은 오히려 여아 배제 모티프가 도달한 새로운 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나오며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만화 드라마 〈연모〉를 대상으로 작품의 주요 서사가 어떻게 고전서사와 맥락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여아 배제 및 쌍둥이 남매 모티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창작자가 고전서사의 특정 모티프를 의식적 의도적으로 차용했다고 주장 논증하기보다, 그 여부를 떠나 여아

배제의 기제 및 쌍둥이 간 외모의 동일성에 있어서 고전서사 모티프가 〈연모〉에도 변용되어 있음을 고찰하였다. 남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여아를 배제하는 서사, 쌍둥이 간 외모의 동일성을 부각하는 서사의 맥락 속에서 고전서사 작품과 〈연모〉가 한 줄기에 놓일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면서도 현대의 〈연모〉는 여아를 배제하면서 동반되는 부인을 일부 극복하고 주인공의 자유로운 삶을 보존하는 결과로 나아갔다.

본론에서도 언급했으나, 여아 배제 및 쌍둥이 남매 모티프에 주목하여 고찰한 결과 〈연모〉에서 주인공이 수행한 남성으로서의 삶은 쌍둥이 남매 뿐만 아니라 ‘여성영웅소설’ 작품들을 검토할 때 효과적으로 이해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작업이 주로 〈연모〉의 ‘기본 설정’과 관련되어 있다면, 후속 연구를 통해서도 그 ‘기본 설정’ 이후의 전개를 집중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본고의 한계이자 과제로 남겨 둔다. 또한, 본고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른 가족 관계의 서사적 변용을 논의하는 연구, 고전서사 모티프와 현대적 인간관이 혼재된 콘텐츠를 이해하는 연구가 한층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이소영, 『연모』 1~11권(출판본 E-book), 대원씨아이, 2011~2014.  
한희정 극본, 송현욱·이현석 연출, 〈연모〉 20부작, KBS2, 2021.10.11.~2021.12.

#### 14. 방송.

(프로그램 홈페이지 :

<https://program.kbs.co.kr/2tv/drama/thekingsaffection/pc/index.html>)

한희정, 『연모 1·2- 한희정 대본집』(E-book), 북로그컴퍼니, 2022.

인권환, 『한국구비문학대계』 4-1(충청남도 당진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4, 1~581쪽.

최운식·최진형 편, 『한국구전설화집』 10(충남 예산편), 민속원, 2005, 1~466쪽.

김기동·전규태 공편, 『남윤전 정비전 남강월전』, 서문당, 1984, 1~226쪽.

신해진 선주, 『조선후기 가정소설선』, 월인, 2000, 1~639쪽.

정길수 역, 『창선감의록』, 돌베개, 2021, 1~416쪽.

조동일 편, 『조동일 소장 국문학연구자료』 제27권, 박이정, 1999, 1~592쪽.

조희웅, 『고전소설 줄거리 집성』 제2권, 집문당, 2002, 1~1022쪽.

\_\_\_\_\_, 『한국 고전소설 등장인물 사전』 전 21권, 지식올만드는지식,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고전소설 캐릭터 사전 DB』,

[<http://waks.aks.ac.kr/rsh/?rshID=AKS-2007-HZ-3001>]으로 이용.)

### 2. 연구 논저

강우규, 「〈유효공선행록〉 쌍둥이 형제갈등의 양상과 의미 고찰」, 『우리문학연구』 64, 우리문학회, 2019, 63~86쪽.

강혜진, 「〈전우치전〉 ‘주선랑’ 화소와 가상에 대한 사유 -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고전과 해석』 29,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9, 43~74쪽.

김금숙, 「설화 〈호랑이 눈썹〉과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비교 연구」, 『국어국문학』 171, 국어국문학회, 2015, 259~288쪽.

김영희, 「“여성 신성”의 배제와 남성 주체의 불안 -〈오늬힘내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3, 5~

54쪽.

- 김자현, 「한국의 쌍둥이설화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74쪽.
- 김준희, 「〈오누이 힘내기〉 설화 연구: 담론 층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190쪽.
- \_\_\_\_\_, 「남매관계 설화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255쪽.
- 김지은, 「웹툰 〈가담항설〉의 모티프 수용양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74, 우리문학회, 2022, 7~29쪽.
- 김하나, 「한국 TV드라마에 나타난 남장 여성 연구 :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 〈바람의 화원〉, 〈성균관 스캔들〉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56쪽.
- 나경수, 『한국의 신화 연구』, 교문사, 1993, 1~337쪽.
- 노보윤, 「고전소설 결연징표의 현대적 변용 연구 - K-drama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76, 우리문학회, 2022, 7~38쪽.
- 송주희, 「〈정진사전〉에 나타난 결연담의 서사적 기능과 그 의미」(『어문연구』 70, 어문연구학회, 2011, 195~217쪽.
- 이명현, 「웹툰 〈도깨비 훈장〉에 나타난 고전서사의 현대적 변용」, 『우리문학연구』 67, 우리문학회, 2020, 65~93쪽.
- 이지영, 「〈오누이 힘내기 설화〉의 신화적 성격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221~259쪽.
- 이채영, 「웹툰을 중심으로 본 전통적 세계관과 이물교환 모티프의 계승과 변주 - 웹툰 〈호랑신랑던〉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42, 돈암어문학회, 2022, 57~88쪽.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한글개정판), 일조각, 2006, 1~570쪽.
- 정선희, 「윤여옥의 활약을 중심으로 살핀 〈창선감의록〉의 주제 구현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3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175~208쪽.
- 조현설, 「〈해와 달이 된 오누이〉형 민담의 창조신화적 성격 재론」,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2007, 107~130쪽.
- 최어진, 「고전장편소설의 복장전환 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86쪽.
- 브루스 핑크, 『라캉의 주제: 언어와 향유 사이에서』, 이성민 역, 도서출판 b, 2010, 1~382쪽.

스티스 톰슨, 『설화학원론』, 윤승준·최광식 역, 계명문화사, 1992, 1~683쪽.

### 3. 인터넷 자료 및 기타 참고 사항

남지은, 「[연모, 어땠어?] 뽀하지 않아서, 오글거리지 않아서, 그래서 섰다」, 『한겨레』, 2021.12.15.,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23406.html](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23406.html)」, 2023.5.1. 접속.

김소영, 「박은빈 주연 ‘연모’, 드라마 최초로 국제 에미상 수상」, 『동아일보』, 2022. 11.2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22/116626618/2>」, 2023.5.1. 접속.

홍란 글, 이소영 원작, 『연모』 1~3(E-book), 노블리타, 2017.

김영현·박상연 극본, 박홍균·김근홍 연출, 〈선덕여왕〉 62부작, MBC, 2009.5.25. ~2009.12.22. 방송.

양혁문·노선재 극본, 조현탁·심나연 연출, 〈마녀보감〉 20부작, JTBC, 2016.5. 13.~2016.7.16. 방송.

ABSTRACT

A Study on the Exclusion of Girls and Variations of  
the Twin Sibling Motif in Classic-based Content  
- Focusing on the comic and drama “The King’s Affection”

Kim, Jun-hee

This paper examined how classic-based content can be connected to classical narratives, focusing on the motifs of girl exclusion and twin sibling for the comic and drama “The King’s Affection”. I examined how the core elements of classical narrative motifs, such as the mechanism of girl exclusion and the identity of appearance between twins, are transformed in “The King’s Affection”. “The King’s Affection” is a story in which the protagonist, who was almost killed for being a girl, cross-dressed and became king instead of her twin brother. It was shown that the exclusion of girls between sibling for the cause of protecting boy and the cross-dressing by the identical appearance of twin sibling, can be found in folk tales and classical novels. In terms of the core content of the motif, the classical narrative and “The King’s Affection” are connected, but the contemporary “The King’s Affection” inherits -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 the main conditions and progress of girl exclusion in the tale of brother-sister conflict, but transforms the motif into a contemporary one by partially overcoming the ‘disavowal’ that was an unconscious mechanism of girl exclusion in the tale. In addition, the similarity in appearance between sibling and the cross-dressing are also found in many classical novels,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impact on the lives of the characters. “The King’s Affection” starts from the ‘identity of appearance’ between twin sibling, but progresses to a stage where the inevitable ‘difference’ between them is exposed. The heroine’s recovery of her life is realized in terms of securing the independence and uniqueness of individual existence. This ‘individuality’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projection of a contemporary perspective, but it can also be understood as an achievement of transforming classical narrative motifs to suit the contemporary times.

**Key Words**

Comic and Drama “The King’s Affection”, Exclusion of Girls, Twin Sibling, Brother-Sister Tales, Contemporary Variation, Classic-based Content

논문투고일: 2023.07.15. 심사완료일: 2023.08.09. 게재확정일: 2023.08.11.
--